

육아정책 예산, 막대한 지원보다는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

백선희 소장

정책의 중요도를 가늠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정책에 책정된 예산이다. 예산 규모는 해당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저출산정책, 보육정책, 유아교육정책 등의 이름으로 책정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참여정부 시기의 보육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들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는 육아를 가정이란 사적영역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공적영역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육아정책의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이 여전히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며, 10년 이상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이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연 2조원 가량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에 투입하였으나, (일부이기는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이 돈을 사적으로 유용(流用)하기까지 했다. 정부가 나름 의지를 갖고 육아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했으나, 결과는 왜 이러한가?

2017년 OECD는 웰빙의 측정지표 일부를 수정하였다. GDP(국내총생산)가 높은 나라의 국민이 낮은 나라의 국민보다 반드시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부가 제시한 숫자, 결과, 목표를 달성하면 웰빙(well-beng)의 삶이 도래할 거라는 사고방식을 수정해야 했다. 인간의 웰빙(well-beng)은 숫자, 목표, 결과와 같이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측정하기 어려운 것”에 더 많이 좌지우지됨을 깨달은 것이다.

OECD의 이와 같은 반성적 입장은 지난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제6차 OECD 세계포럼 개막식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보다 책임감있는 세상”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네덜란드 왕세자빈 페트라 라우렌틴의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의 인용글은 그녀 연설의 일부이다.¹⁾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면, 잘못된 정책이 나오고, 잘못된 측정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고령화 시대에 독거노인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전문가(연구자)들은 노인고독의 원인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독거노인 고독사의 원인을 ‘혼자 있어서의 외로움’으로 진단하였다. 정책은 이에 초점을 맞춰 수립, 추진되었다.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노인을 방문하여 상담도 하고 생필품도 전달하였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독거노인 고독사의 문제의 원인은 ‘혼자 있어서의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지 않아서 오는 외로움’에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의미있는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느끼지 못함을 독거노인 고독사의 원인으로 진단했다면, 정책목표, 정책내용, 측정방법은 달라졌을 것이다.”

페트라 라우렌틴은 이에 덧붙여 “보여지는 현상이 아닌 감정이나 경험에 따라 정책수요자들을 그룹화(grouping)해서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조언하면서 “고학력의 식자층인 연구자가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자만감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 추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학력의 엘리트층이므로 이들에 의한 정책은 일반 보통 시민들의 삶의 경험이나 감정과는 괴리가 있어서 실패하기 쉽다는 뼈아픈 조언이었다.

우리네 육아정책이 지지부진한 근본 원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겠다. 그동안 약 150조억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앞서 독거노인 정책처럼 육아정책의 원인을 잘못 진단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짚어 봐야 하겠다. 누리과정 지원금 비리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사립유치원의 법적·행정적·사회적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사립유치원의 재원아가 전체 유치원 재원아의 70%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랏돈을 지원한 대가라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

막대한 예산투입만으로 육아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0여년 육아정책 사(史)의 교훈이다. 육아정책은 정책입안자, 연구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저마다 육아의 어려움이 다른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영유아들이 처한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서 지금의 육아정책을 재수립하고 그에 따라 예산 투입을 해야 하겠다.

1) 자료집에는 기초연설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연설자의 말을 기록해서 작성한 것임.